

월출산 기찬밧길은 '내손내산'

영암군, '기찬밧길 가꾸기 군민운동 협약' 맺어 군민-지역기관단체 주인으로 나서 가꿔갈 것 약속



영암군이 월출산 둘레길인 기찬밧길은 '내손내산(내 손으로 가꾸는 내 산)'이라고 선언했다. 영암군이 지난 12일 군민과 지역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기찬밧길 가꾸기 군민운동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월출산 둘레에 펼쳐진 기찬밧길을 군민과 지역기관단체가 주인으로 나서서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가꿔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

기찬밧길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들이 늘어감에 따라, 영암군은 군민과 함께 숲길을 가꾸나가는 방식을 제안했고, 군민의 참여로 이날 협약식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영암군민, 지역 15개 기관단체장은 기찬밧길을 영암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단장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찬밧길 가꾸기 군민운동에 참여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며 "군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군민이 실천하는 숲길 가꾸기로 기찬밧길을 군민의 길, 대한민국의 숲길 명소로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찬밧길은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기찬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진 총 5구간, 33km에 달하는 숲길이다. 영암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월출산의 기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건강길로 이름이 높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이동 양봉농가 현장 기술지원 나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이동 양봉농가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이동 양봉 중인 우리 군 농가 봉장을 방문해 채밀 기술지원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최근 전국적인 꿀벌 소멸 현상과 이상기후로 개화 시기가 변화하는 등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함평군양봉연구회는 80여 명으로 이중 30여 명이 이동 양봉을 하고 있으며 경북 칠곡, 경남 거창, 충남 공주 등 전국적으로 아까시아 개화 시기에 맞춰 벌꿀을 채밀 중에 있다.

이동양봉은 6월 말까지 경기도를 걸쳐 강원도도 이동하며 이어질 예정이다.

허삼영 양봉연구회 회장은 "올해만큼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다. 꿀벌 폐사와 기후 악화로 전년 대비 봉군과 꿀 수확량이 절반 가량 줄어 들었다"며 "바쁜 영농철에 기술 지원을 해준 농업기술센터 덕분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꿀벌은 양봉 산업뿐 아니라 작물 생산성에도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양봉농가에 적절한 지원과 기술 교육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군, 전국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참가팀 20팀

무안군은 무안연꽃축제 기간 중 7월 22일 개최하는 '제15회 황도골 무안 전국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무안의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

성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공항의 위상과 무안을 세계에 알리고자, 무안특산물에 이용한 독창적이고 상품성 있는 음식 발굴을 위한 기내식 요리 경연으로, 주제는 '세계를 잇는 무안의

맛'이다.

참가 자격은 요리에 자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레시피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7월 7일 합격자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를 거쳐 선발된 20팀은 7월 22일 연꽃축제장 주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안심승하차 구역 설치로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나선다

약 4억 투입...안심승하차구역 69개소 조성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포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제한,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자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안심 승하차 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지점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목포시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안심승하차 구역을 운영 중이다.



현재 목포시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58개소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안심승하차구역 31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38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총사업비 약 4억원이 투입돼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구역 조성의 주된 사업 내용은 승하차구간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와 승하차구간 내 무단횡단 방지 난간 설치가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수선화 섬' 신안 지도 선도는 이제 금영화 노란 물결

캘리포니아 양귀비...높이 30~50cm로 최장 8월까지 꽃 볼 수 있어



신안군은 봄의 전령사 수선화꽃 향으로 섬 전체를 물들였던 '수선화의 섬' 지도읍 선도에 금영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12ha에 이르는 면적의 수선화가 차지한 자리에는 노란 금영화가 피었다.

금영화는 캘리포니아 양귀비라고도 하며, 높이 30~50cm로 5월부터 최장 8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경관식물이다.

신안군은 수선화 외에 금영화, 황금사철 나무, 장포, 분꽃 등을 심어 '선도'를 사계절 꽃피는 섬으로 조성해 언제 방문하더라도 특유의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색채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